

# 한국 현대시의 성의식과 이데올로기

김 경 복\*

## 차 례

- |                             |                      |
|-----------------------------|----------------------|
| 1. 반미학으로서 성적 표현             | 3. 성 표현과 저항적 이데올로기   |
| 2. 성적 표현과 제도화된 예술에 대한 자기 비판 | 4. 생산적 문학담론으로서 성적 표현 |

## 1. 반미학으로서 성적 표현

성은 형이상학적 관념의 형태보다 삶의 현실로 구체화된다. 관념이 삶을 경직된 질서 속에 가두어 놓는 권위주의적 인식 체계라면 성은 경직된 질서를 깨뜨리고 권위주의적 인식 체계에 저항하는 인식 체계로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성에 대한 인식은 데리다가 주장한 해체적 인식과 같아진다.

데리다는 플라톤에서 훗설, 리쾨르에 이르는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으로 해체론을 제기했다. 즉 데리다에 따르면 서구 전통 철학으로 형이상학은 늘상 세계를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우월한 이항대립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 때 이 전통적인 이항대립, 예컨대 내재성/외재성, 순진/타락, 진리/거짓, 이성/감성, 의식/본능, 노동/성 등의 대립에서 첫째항은 체계의 관념의 경계이거나 중심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용어이고, 반면에 둘째항은 첫째항에 대해서 언제나 외부적이고 이차적이며 부수적이다. 때문에 첫째항이 보증하는 가치들이란 현존·근접·소유권·고유성·동일성·의식을 지배하는 진리·생체험·의미의 충족성 등이고, 둘째항은 이런 확실하고 유력한 가치들을 와해시키는 항목들, 즉 차이·부재·변화성(alteration)·역사·대체·미결정성(undecidability) 등으로 설정된다.<sup>1)</sup>

데리다는 형이상학이 이러한 이항대립에서 대립과 우선권의 전략을 통해 자신의 기초적 가치들을 침해하는 모든 것을 억압한다고 본다. 즉 형이상학은 이항대립에서 동일성이라는 전략을 통해 갈등과 모순을 조화시키고 무화시킨다. 이것은 현실적 모순을 동일성으로 용해하고자 하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성은 바로 예로부터 지배계층이 증시하는 노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즉 형이상학이 억압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념화된 질서를 전복한다. 성은 구체적 현실의 장에서 자발성에 입각한 표현인 만큼 개성, 본능, 자유로움을 통해 통제되고 완결된 질서를 해체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성의 이러한 전복과 해체의 특성은 문학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성적 표현은 관념화된 언어에 대해 현실적, 구체적 언어로 그 권위에 저항한다. 지배자는 공식적인 언어를 통해 자기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 재생산하려 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에게 사회와 언어가 지배하는 권력관계의 일정 이미지를 반영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다.<sup>2)</sup> 그럴 때 문학은 자칫 지배 담론을 관념화하여 현실적 문제를 회색시킨다. 예술이 해방에 대한 약속<sup>3)</sup>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면 문학에서 관념적 미학, 즉 본질주의 미학이 갖는 억압에 저항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필연적이고 강력한 저항 미학으로서 우리는 반미학을 생각할 수 있으며 성적 표현이 바로 이 반미학적 입장 위에서 있음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성적 표현은 바로 현실적 삶에서의 차이성을 보여주는 것에 해당하는데, 차이성이 동일성에 억압된 인식 요소로서 오히려 동일성보다 근원적일 수 있고 무엇보다 차이성 없는 동일성은 있

1) 마이클 라이언(나병철·이경훈 역), 『해체론과 변증법』(평민사, 1994), pp. 45~46.

2) 마리나 야겔로, 「성과 언어」, 『언어사회학 서설』(이병혁 편저, 까치, 1986), p. 176

3) 마르쿠제, 『미학의 차원』(문학과 사회연구소, 청하, 1983), p. 51

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라 할 때 차이성은 현실의 세부와 모순, 대립 등 객관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인식소로서 동일성이 가지는 권위적 가치에 대해 전복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학을 하나의 세계로 설정해 인식한다 할 때 동일성의 문학적 전략은 그것이 미학이든 예술적 진실이든 하나의 고정된 권위에 여러 가치들을 동화함으로써 억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차이성에 따른 문학적 전략은 하나의 권위에 도전해 여러 가치와 예술적 진실을 보게 함으로써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곧 억압된 미학적 진실과 세계에 대한 평등하고 객관적 인식의 틀을 복원하여 열린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반미학이라면 성적 표현은 바로 표현관행을 전복함으로써 이런 의미를 지향한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 현대 시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성적 표현이 갖는 반미학적 특성과 그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성적 표현과 제도화된 예술에 대한 자기 비판

우리 나라의 경우 문학에서 성적 표현이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은 유교 문화권이 갖는 가부장제 사회에 반항하기 위하여 민중들이 저속한 응답패설을 사용한 것에서부터라 할 것이다.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 오면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가 공식문화로 설정되자 이에 억눌린 민중들은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로 그들의 욕구를 분출하였다. 고려 시대 속인들이 불렀다는 「만전춘」, 「쌍화점」 등이나 조선 시대 사설시조를 비롯한 판소리, 탈춤 등에 나타난 성적 표현은 양반 사대부 계층이 설정한 권위적 질서에 이탈과 부정의 형태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바로 억눌린 민중들의 저항적 욕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대시에 나타난 성적 표현의 금기는 이중적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 이미 성적 표현이 금기시되고 있던 상황에서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 따라 또다른 억압이 여기에 첨부된 것이다. 즉 성이란 현상에 대한 서구인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합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될 금기 그

자체였고, 공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논의될 수 없는 주제이며, 사적 영역의 테두리 안에 비밀스럽게 간혀 있어야 하는, 즉 분명 사회적 현상이긴 하지만 사회적이라는 공적 영역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상으로 존재하였다. 성은 '금지된 장난'이라는 이러한 서구인의 인식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확산에 편승하여 지구촌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성윤리의 전파 역사라 하겠는데 우리 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제도화된 금기로 성적 표현은 받아들여 졌던 것이다.<sup>4)</sup>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억압에서 성적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영역의 자기 주장을 뜻하며 이는 주체 의식의 회복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곧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의식을 이러한 담론 속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성적 표현이 갖는 위반과 일탈의 의미는 당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공식문화에 대해 하나의 대안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해당한다. 바타이유가 에로티즘을 전체적으로 금기에 대한 위반의 형식이며, 인간적인 행위<sup>5)</sup>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문학에서 성적인 표현이 갖는 의미를 명백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전통적 미학에 입각한 예술이 자율성과 동일성의 전략에 따라 은연중 부르조아 지배 담론을 재생산하는 미학 체계로 기능함에 대해, 성적 표현을 등장시키는 문학은 억압된 피지배자의 욕망과 본능의 다양성을 차이성의 전략에 따라 드러냄으로써 현실의 제 모순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60년대 김수영이 시도했던 성적 표현은 바로 이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비숍女史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進歩主義者와  
 社會主義者는 내에미 씹이다 統一도 中立도 개좃이다  
 隱密도 深奧도 學究도 體面도 因習도 治安局으로 가라 東洋拓殖會社, 日  
 本領事館, 大韓民國官吏,  
 아이스크림은 미국놈 좃대강이나 빨아라

— 김수영, 「거대한 뿌리」

김수영이 전하는 시적 의미는 바로 미 제국주의에 빌붙어 사는 비주체적 인간들에 대한 풍자다. 때문에 이 시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국주의,

4) 전경수, 「성애의 문화론과 생물학」, 《사회비평 제13호》(사회비평사, 1995), p. 14  
 5) 조르주 바타이유(조한경 역), 『에로티즘』(민음사, 1989), p. 102

또는 식민주의로 대변된 권위적 질서다. 즉, 피지배 계층인 우리 민중의 욕망과 분노를 성적 표현에 담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우선 이 시가 전통적 서정시와 다른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을 유념하고 바라봤을 때 더욱 명백해진다. 김수영은 시 속에 욕설과 성적 표현을 넣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시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고자 한다. 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먼저 깨뜨려 줌으로써 부르조아 문화가 만든 제도적 시 감상법이 아닌 민중들의 시적 향유방법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그가 볼 때 전통 서정시는 주관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현실을 신비화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객관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본다. 즉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관념 아래 문학은 현실과 유리된 초월의 세계를 전망해주는 것으로 어느덧 그 영역이 후퇴되어 버렸다는 인식이다. 때문에 전통 서정시는 시 속의 내용에 하나의 극적 환상을 부여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독자는 전통 미학이 지니는 동일성의 전략에 따라 동화의 상태를 갖게 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회색시키거나 사상(捨象)해 버린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비껴서게 하여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게 하는 문학, 다시 말해 부르조아 사회에 제도화된 예술로 그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이 되어버렸다고 보는 것이다. 80년대 시인 황지우가 “의사소통이 안되는 문학, 즉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도려내어 버린 ‘무의미를 위한 문학’, 이른바 지난 세대가 ‘순수문학’이라고 불렀던 문학은 구조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문학의 정치적 긴장을 회피하려는 하나의 방어수단으로서 자율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sup>6)</sup>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수영이 행한 비판과 저항의 형식으로서 ‘온몸의 시학’, 또는 ‘반시론’을 폈던 의미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실제 김수영은 가장 매도해야 할 것으로서 문화적 채국주의와 그 속에서 변식되고 있는 부르조아 시를 들고 있다.<sup>7)</sup> 때문에 김수영의 반시론은 바로 부르조아 문학에 대한 자기 비판이라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실험적인 문학은 필연적으로는 완전한 세계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진보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모든 전위문학은 불온하다. 그리고 살아있는 문화는 본질

6) 황지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한마당, 1994 개정판), p. 26

7) 송재영, 『시인의 시론』 『김수영의 문학』(민음사, 1983), p. 116

적으로 불온한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화의 본질이 꿈을 추구하는 것이고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8)</sup>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반시론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수영에게 있어서 반시론의 기법적 요체는 바로 요설과 성적 표현이다. 그 때 성적 표현은 기존 시적 표현의 틀이 지배 논리(부르조아 사회의 통치 논리)를 유지, 강화시키는 사회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함에 대해 형식적 전복을 통해 제도 예술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지배 논리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것은 분명 문학 내부에서의 ‘낯설게 하기’로서 문학에 대한 인식의 재고(再考)를 요청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시에서 성적 표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러한 반미학에 입각해 펼쳐고 있는 문학적 정신과 그 기법이다. 그럴 때 우리가 특히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부정’의 개념이다. 부정은 체계 속의 모순을 통한 체계의 변화를 불러오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미학을 이미 역사 속에서 실천했던 아방가르드 예술을 논할 때 이러한 부정이 잘 나타난 전위예술의 의의를 마르쿠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위문학의 노력이란 곧 사실이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힘을 깨뜨리고, 사실을 설정하고 강요하고 또 거기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로 말해보려는 노력이다. 기존 사실의 힘이 점점 전체주의적이 되어, 모든 반대 세력을 흡수하고 모든 논의와 대화의 세계를 규정하게 됨에 따라, 모순의 언어를 발음하려는 노력은 점점 비합리적이고 모호하며 부자연스러워 보이게 된다. 따라서 미리 협잡으로 조작해 놓은 게임의 규칙에 대한 위대한 거부를 뜻하는 부정의 언어의 모색이 바로 전위 문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정이 기존 상태를 현상의 파괴성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제 요인 및 힘들과 관계지어 적용될 때, 그 부정은 규정적이다. 그 기본적인 제 요인과 힘들은 역사적인 요인과 힘들을 말하며 그래서 ‘규정적 부정’(determinate negation)은 결국 정치적 부정을 뜻하게 된다. 이것이 변증법적 언어와 시적인 언어가 만나는 지점이다.”<sup>9)</sup> 마르쿠제가 전위 문학의 본질을 ‘규정적 부정’으로 정의하고 그것의 의의를 정치적 부정이라 지적하고 있

8) 김수영, 「실험적인 문학과 정치적 자유」 『퓨리턴의 초상』(민음사, 1976), p. 58

9) 마르쿠제(김현일·윤길순 역), 『이성과 혁명』(중원문화사, 1964), p. 7~9

는 것은 타견이다. 전위 예술이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에 제도화된 형태로 기능하고 있던 전통 예술에 대해 자기 비판의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을 잘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있어서 성적 표현이 문제된 것이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리비도 이론을 받아들인 초현실주의 문학에서부터라면 성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전위적이다.

때문에 성적 표현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제도화된 예술에 대한 자기 비판의 형식이 된다. 즉 전통 예술이 예술의 자율성과 동일성을 강조함으로써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었음에 대해서 예술을 '현실의 장'에 이끌어 내리는 시도를 보여준다. 페터 뷔르거가 부르조아 예술에 대한 아방가르드 예술의 이러한 '부정'의 긍정적 공격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는 유럽 아방가르드 내에서 가장 급진적인 운동인 다다이즘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의 유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예술 및 그것의 부르조아 사회에서의 발전 과정을 비판한다고 말한다.<sup>10)</sup> 즉 유럽의 아방가르드 운동을 부르조아 사회에 있어서의 예술의 지위에 대한 공격이라 정의 할 때 여기서 부정되는 것은 예술의 초기적 형식(즉 스타일)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적 삶과 무관해진 제도로서의 예술이다. 때문에 아방가르드 예술이 제도로서의 예술을 상대로 하는 것은 예술의 자기비판에 해당한다.<sup>11)</sup> 이것은 예술이라는 제도 속에 내재한 모순의 변증법적 지양이며 바로 마르쿠제가 말한 '규정적 부정'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아도르노가 말한 부정적 참여 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문학에서 성적 표현이 갖는 미학적 거점과 기능은 예술이 지녀야 할 한 본질적 속성인 창조와 변혁의 정신, 바로 반미학 위에 입각해 있다고 하겠다.

### 3. 성 표현과 저항적 이데올로기

이미 앞에서 우리는 성 표현이 관념적 언어에 저항하는 의미임을 살펴봤

10) 페터 뷔르거(이광일 역), 『아방가르드 예술이론』(동환출판사, 1986), p. 61

11) 위의 책, p. 60

다. 그러나 그 저항은 실제보다 근원적 이데올로기를 띠고 있다. 성적 욕망은 권력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권력은 특히 금기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사회일수록 사회의 억압적 구조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역할을 담당할 근거를 찾는다. 그럴 때 권력은 필요에 따라 성욕을 억압하기도 하고 권장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권장하면서 억압한다.

이 때 이들의 억압은 주로 남근중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행된다. 성적 표현은 이 정치적 억압을 성억압으로 치환하여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을 객관화시키는 해방 이데올로기다. 바흐친에 의하면 언어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기<sup>12)</sup> 때문에 어떠한 언어를 쓰느냐가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의 언어는 하나의 중심만을 인정하려는 공식적이고 구심적 언어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원심적 언어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적이며 비공식적인 동시에 민중의 정서를 대변하는 언어다. 때문에 성적 표현은 지배 계급에 대한 피지배 계급의 대타의식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지배 계급에 대한 저항의 의식마저 실어나르는 것이다. 푸코는 역사적으로 성은 억압되어 왔으며, 그 억압의 동기는 권력<sup>13)</sup>의 의도에 있다고 했다. 이것으로 볼 때 성의 자유로운 표현은 당대의 권력 체계와 함수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표현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 권력에 대한 전복과 저항의 의미를 생성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시문학에서 민중들의 저항적 의식을 담아내고 그 의식의 실천적 전위성을 보여준 사실시조가 초기에 성적인 표현을 주된 무기로 삼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비록 시조의 틀을 완전히 전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로 볼 때 획기적인 형식의 해체를 보여준 사실시조는 바로 형식의 파괴를 통한 내용의 파괴, 즉 관념적 주자학적 질서에 반발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민중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고 있다.

半 여든에 첫 계집을 하니 어렸두렷 우벅주벅 주글 번 살 번 흐다가  
와당탕 드리드라 이리저리 하니 老都壽의 모습 흥글항글  
眞寶로 이 滋味 아뉘던들 길 적보더 흘랏다.

— 『진본청구영언』, #508

12) 미하일 바흐친(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의 시학』(정음사, 1988), 참조.

13) 미셸 푸코(이규현 역), 『성의 역사』(나남, 1993), p. 8 역자 서문



이 사설시조는 『진본청구영언』에 실려있는 것으로 사설시조의 발생 초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마흔 살이 되도록 여자 경험을 하지 못한 노총각의 성체험 이야기를 통해 유교의 예교주의 아래에서 좀처럼 표현하기 어려웠던 개체적 인간의 성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sup>14)</sup> 특히 의태어의 사용과 해학적인 표현으로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 것은 관념적 언어에서 벗어나 구체성과 현실성에 입각한 민중의 솔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설시조를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인간 삶의 절실한 욕구인 '성'을 시적 표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중세봉건적 세계상에서 볼 때 예술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심층적인 측면에서는 반봉건적 이념을 은밀히 유포하고 있는 점이다. 즉 이 시조는 바로 조선조 지배계층이 금기시한 성적 표현을 통해 충, 효, 예의 공식적 문화나 예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제도적으로 주어진 의식이나 정서가 아닌 민중 자신의 생활속 정서와 사고에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며, 더 나아가 민중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학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사설시조에서 보이는 성, 혹은 성적 표현은 신분적 질서와 봉건적 관념에 억압된 피지배계층이 양반계층의 허구적 담론 체계를 깨뜨리며 인간의 본원적 욕구를 노출하여 인간 해방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기 위한 문학행위의 의미를 띠게 된다. 따라서 사설시조의 성적 표현은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그 이데올로기를 유지, 재생산하던 공식 문화, 즉 4음보의 평시조와 가사문학을 뒤집어 엎으려는 민중의 저항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판소리, 탈춤 등 조선 후기 민중 예술에 나타난 음담패설이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났는지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저항 이데올로기적 성적 표현은 그 역사적 맥을 건너 뛰어, 타민족인 일제가 지배 계급으로 있던 식민지 현실에서 그 본질적 성격을 드러낸다.

14) 신경숙, 「초기 사설시조의 성의식과 市井的 삶의 수용」 『한국문학논총 제16집』 (한국문학회, 1995), p. 204.

龜裂이生긴莊稼泌潭의地에한대의棍棒을꽂음.  
 한대는한대대로커짐.  
 樹木이盛함.  
 以上꽂는것과盛하는것과의圓滿한融合을가리킴.

……<중략>……

地球를掘鑿하라

同時에

사람의宿命的發狂은棍棒을내어미는것이어라

\* 事實且8氏는自發的으로發狂하였다. 그리하여어느덧且8氏의溫室에는隱花植物이꽃을피워가지고있었다. 눈물에젖은感光紙가太陽에마주쳐서는회스무레하게光을내었다.

— 李 箱, 「且8氏의出發」

초현실주의자로 자처하던 이상(李箱)의 시들은 성적인 이미지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무의식 세계 속의 이미지로 제시됨으로써 일반적인 언어논리로 이해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 시는 앞에서 마르쿠제가 말했던 바로 '모순의 언어'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곤봉'이 남성을 상징하고 땅이 여성을 상징하여 “圓滿한融合”을 그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생략된 행에서 “輪不輾地”, 즉 아무리 돌려도 땅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말로 볼 때 건강한 성적 결합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곤봉'은 이상에게 “宿命的發狂”의 대상이 되면서 “地球를掘鑿”해야만 하는 강박관념으로 남게 된다. 이 말은 그에게 성은 더이상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존재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눈물에젖은感光紙”에 “회스무레하게光을내는” 정도로 하나의 성도착적 증세를 떨 뿐이다. 이것은 그가 주인공으로 제시하고 있는 「且8氏」란 것이 사실 그의 시에 자주 나오는 '18'의 숫자처럼 육두문자 '×팔씨'를 뜻한다<sup>15)</sup>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성의 비틀림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5) 李箱(이승훈 편), 『李箱문학전집 1-시』(문학사상사, 1989), p. 179

이는 결국 왜곡된 성적 내용과 표현으로 왜곡된 세상을 풍자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정상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곳임을 폭로하는 것이며 야유와 조롱으로 세상에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즉 1930년대 당시 일제 식민치하의 우리 민족의 억압된 성심리를 표현하면서 권력 메카니즘으로 당시 우리 민족을 억누르고 있던 일제의 광포한 근대화의 논리에 부정의 언어, 모순의 언어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주의가 남근중심적(phallogocentric)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체제라면, 시적 에로티시즘은 정치적 억압을 성억압으로 치환하여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을 객관화시키는 해방 이데올로기<sup>16)</sup>를 드러낸다 할 것이다. 비록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무력하고 거세당한, 그러면서 자조적인 표현으로 일관되고 있지만 이상 시에 나타난 성적 표현은 일제가 만들고 있는 근대성의 허울에 대한 반항과 원시적 생명의 건강성을 염원하는 당시 우리 민족의 생명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때문에 그가 이성적, 혹은 논리적 현실에 대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으며 초현실주의의 세계로 나아간 것은 바로 역사적 현실에 대한 그 나름의 저항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그의 시에 자주 나오는 성적 이미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추구로서 성적 이미지의 표현은 당시 생명파의 일원이었던 서정주의 시에 더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하겠다.

黄土 담 넘어 돌개울이 타  
 罪 있을 듯 보리 누른 더위—  
 날카론 왜낫(鎌) 시렁우에 거러노코  
 오매는 몰래 어덕로 갔나  
 바윗속 山되야지 식 식 어리며  
 피 흘리고 간 두럭길 두럭길에  
 붉은웃 님은 문둥이가 우리

땅에 누워서 배암같은 계집은  
 땀흘려 땀흘려  
 어지러운 나— 큰 업드리었다.

— 서정주, 「麥夏」 전문

16) 송희복, 「시와 에로티시즘」 《현대시》(1994. 11), p. 33

건강한 생명의 추구라는 생명파의 일원인 서정주의 이 시는 바로 성적 표현이 갖는 이데올로기성을 잘 보여준다. 이 시에 나타난 성적 상황은 산돼지나 배암처럼 '짐승'의 속성을 지닌 야성의 세계로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즉 생명의 원시적 건강성의 추구다. 원시가 문명에 대립항이라면 그것은 곧 문명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이 시는 지니고 있다. 곧 문명이 인간의 이성적 의식을 기반으로 발달한다 할 때 인간의 다른 요소인 본능은 줄곧 억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그런데 서정주가 성을 시의 지평에 전경화하는 것은 억압된 본능을 해방하고 인간성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명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저항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는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해명할 때 보다 성표현이 갖는 이데올로기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서정주는 이 시를 일제 군국주의가 노골화되는 1930년대 말에 썼다. 군국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가 결탁한 일제의 한국 지배는 매우 간교했고 포악했다. 통제와 검열 문화 속에서 민족 말살에 관한 어떠한 저항의 논의를 펼 수 없게 됨으로써 문학은 파편화된 일상을 보여주거나 내면적 세계로의 침잠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상황이 더욱 열악할 때 문학은 존재의 문제에 골몰하게 되는데 이 존재의 문제에서 서정주의 시는 시대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즉 일제는 그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한국을 과잉 억압하게 되고 여기에 정치적, 물리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당시 한국민의 상황으로서는 억압에 대항하는 존재론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다. 거기에서 성적 표현은 바로 현재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야성의 세계, 곧 억압과 불건강함이 없는 순수의 세계를 지향하는 의미를 띠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소극적 저항이었다. 그러나 건강한 생명력의 추구는 현실에 찌든 병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보다 올바른 인간성을 모색하는 의지가 서려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서정주의 「花蛇」, 「대낮」 등의 시에 나타난 악마적, 야성적, 원시적 생명 추구로서 성의 표현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을 억누른 힘에 대한 저항의 우회적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한 형식으로서 성적 표현은 50년대에 들어

17) 마르쿠제(김인환 역), 『에로스와의 문명』(나남, 1989), 참조

서면서 풍자의 기능을 담당한다.

봄도 오기 전에 몇 포기 화초 때문에 떡살을 휘어잡고 야로오  
 라도 불러 보고 나면  
 뼈를 갈고 살을 어여내는 것 같은 울음이 알카 솟고.  
 끝내는 봄도 오기 전에 몇 포기의 화초 때문에  
 의심 제일 주의의 처세 철학과.  
 침도 안바른 거짓말과.  
 각각 다른 비극의 성질을 가지고.  
 굶주린 이리와 같이 입술을 더듬고, 앞가슴을 더듬고.  
 그러나 솔뚜껑 같은 손이 와 닿았을 때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물 두 살이라는 다섯 자 세 치의  
 긴장은 긴장대로 호흡은 호흡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돈과 애정의  
 거리에서  
 하루 세끼의 주식과 몸치장 때문에 원대한 목적 때문에  
 입술을 허락하고 젓가슴을 허락하고.  
 사마구를 달았다고 으시대는 꼴이 차마 보기 싫어서 차마 저고리  
 와 속치마를 훨훨 벗어 던지고 몸까지 허락하는 결의에 살아온  
 꽃들.

— 전영경, 「尊敬하는 淫賣婦」

이 시는 물질적 욕망에 타락한 50년대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시다. 시 속의 화자는 매음부를 “尊敬하는” 대상으로서 “결의에 살아온/꽃들”로 격찬하면서 비꼬고 있다. 때문에 이 시에서 보이는 성적 표현은 야유와 빈정거림이다. 그것은 결국 성적 표현이 갖는 비속성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비속성은 바로 당대의 사회 구조와 삶의 방식들이 타락하고 건강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때문에 그것은 바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측정하는 잣대와 같은 것이며 바로 민중의 시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타락한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 시는 비판적 담론이며 당대 사회상에 대한 저항적 언술이다.

또 이 시는 당시 50년대에 유행이 되고 있던 전통 서정시에 대해 반립한다. 당시 많은 시인들이나 시인 지망생들이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의 『청록집』과 같은 순수 서정시를 고집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전영경의 시는 파격에 해당한다. 후기를 쓴 정한모도 이 점을 놓고 “이러한(쌍스러운—필자) 언어들로 이루어진 <메타포>는 종래의 아름답기만 하던 언어들이 가지지 못하는 새로

은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지닌다”<sup>18)</sup>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이 시는 당시로 볼 때 공식문화에 대한 하나의 도전문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당시 반공 이데올로기와 부조리한 정치 현실로 혼탁한 이승만 정권의 문제를 비껴서 순수와 추상의 세계로 치달아가던 순수문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집 전체가 ‘金山月女史’라는 윤락녀를 내세워 당시의 타락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점은 60년대 김수영 등의 풍자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적 가치가 있다.

때문에 이 시는 문학적인 준거에서 벗어나 보자면 그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50년대의 부조리에 가득찬 정치 현실과 거기에 기생해 살아가는 많은 비주체적 인간들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보여준 무능력과 혼란은 당대의 모순이 되었으며 거기에 휩쓸려 자아를 상실한 인물들은 50년대적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그들을 비꼬고 야유하는 것은 바로 성적 표현을 통해 삶의 건강성을 역설적으로 찾자는 뜻이다. 때문에 폭로와 고발의 비판 정신은 속악한 삶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는 지배 계급의 무능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며 바로 건강한 삶을 원하는 민중들의 이념을 표출한 것이다. 특히 “(빠가) 야로오”의 용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잔재와 당대 삶을 거의 소비적인 것으로 만들던 미국의 우리 사회에 대한 압력과 간섭에 대한 원경적 표현은 바로 성적 표현이 갖는 주체 의식과 자유에 대한 인식을 은연중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위정자에 대한 저항과 제국주의에 빌붙어 기생하는 한국적 상황에 대한 풍자의 맥은 김수영, 신동엽을 통해 60년대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기 시작한 근대화의 물결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새로운 모순을 안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산업화에 따른 소외와 경제적 예측이다. 이정기의 시에 나오는 성적 표현은 역시 바로 정치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고 억압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허! 어허! 어허허어!

18) 정한모, 『世代之 伯爵』, 전영경 시집, 『金山月女史』(신구문화사, 1958)의 후기

머티리얼리즘 毒蛇 이빨에 파악 문  
 혼콰의 男根 끝 흐르는 피, 피에  
 프랙머티즘 시벨진 운두가 거꾸로 박힌  
 내 사랑의 아랫도린 온통  
 찢기고 쭈셔진 사디즘, 매저키즘으로  
 너는 지금 새근 발딱거리며  
 처참한 歷史의 비바람 속에서  
 아득한 汽笛소리에 몸을 싣고  
 아마도 자꾸 어딜 가는 모양이다.

……<중략>……

마구 갈아 뭉개며  
 혈떡이는 뜨거운 숨소리 밀바다에서  
 四時長春 백화가 만발하는  
 아름다운 海東은  
 시방 성스러운 處女性을 앗기는  
 비지땀 霖雨期를 맞는다,  
 파멸적 賣春의 흥수가 범람한다.

— 이정기, 「아리라 廢墟律呂」

이 시가 보여주는 것은 독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판치는 우리 역사의 질곡과 외래사조, 즉 실용주의, 합리주의라는 명분 하에 침윤된 우리 정신의 황폐함이다. 여기에서 성적 표현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 확립에 대한 요청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정신을 고취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즉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근대화와 자주화라는 미명 아래 외세가 간섭해 온 것이 실은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거기에 무력하게 이끌려 온 우리 민족의 나약하고 몰주체적인 태도를 풍자한다. 특히 외세로 인해 발전된 우리 현실이 실은 그들의 매춘관광이나 유희 대상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고발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시는 한국적 주체정신의 민족 정신과 작가정신이 결합된 역사의식을 통한 문명반항적 에로스의 진한 표출<sup>19)</sup>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시 역시 외세로 인하여 굴절된 우리 역사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할 수

19) 최진양, 「한국 현대시의 에로스詩論 試考」(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1985), p. 89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 또한 당시의 공식문화에 저항한다. 어조 자체가 파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데다 요설과 신랄한 성적 비유로 고정화된 문학적 인식에 충격을 가한다. 시에 대한, 문학에 대한 기능을 숙고케 하는 이 시는 그러므로 당대의 제도문학의 틀에서 보자면 일탈이고 위반이다. 위반의 인식으로 문학양식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80년대에 들어와 해체시에 보이는 성적 표현의 의미에서 보다 잘 발견된다. 김영승의 시는 이러한 성적 표현이 갖는 해체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이라 할 것이다.

형이상학적 사고 체계가 완벽한  
나는 가끔 여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우리나라 말 <보지>를 발음했을 때의  
그 전무후무한 공명을 숙고해 본다.

생각해 보았는가  
아무도 몰래 묵묵히  
<보지>를 발음해 보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불타나 예수의 모습을

그대의 아버지나  
대통령이나

그대의 스승을

— 김영승, 「반성 563」

앞에서 봤듯이 성적 표현은 권위적 언어에 저항한다. 권위적 담론 체계에 저항하는 저항 언술은 축제 형식을 띤 유희적 표현과 성적 표현이다. 따라서 지배 담론에 억압되어 있던 민중의 언어인 욕설과 성적 표현을 시 속에 제기함으로써 지배 담론이 정한 금기에 대해 위반하는 것은 피지배자의 욕망의 표현이다.

김영승의 시는 바로 이러한 지배담론에 대한 저항의 한 표현이다. “형이상학적 사고 체계”를 뒤흔드는 ‘보지’의 발음과 표현은 바로 성적 표현이 갖는



가장 전형적인 전복의 의미를 보여준다. 특히 형이상학적 사고 체계가 지배문화, 제도문화, 더 나아가 자본주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할 때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적 표현으로서 성적 언어의 사용은 그 의미하는 바가 자못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김영승이 말하고 있는 시적 진술은 바로 자본주의 문화에 억압되고 도구화된 이성을 까발리고 삶의 내적 자발성이랄 수 있는 본능적 의식을 자유롭게 표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 자본주의에 도구화된 언어를 비판하고 그러한 도구적 질서 안에서 맹목의 상태에 있는 반성하지 않는 삶에 대한 반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이 시는 폭압적인 5공 무렵에 씌어졌다. 모든 것이 전제화되고 자유로운 정신의 표출이 막혔을 때 파괴적 본능만이 불구화된 인간성을 균형잡아 줄 뿐이다. 과잉 억압의 상태 아래서는 본능의 속성 중 화합 본능과 파괴 본능의 어울림이 무너질 뿐 아니라, 화합본능이 축소되고 파괴본능이 강화된다.<sup>20)</sup> 성적 표현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억압에 저항하고 균형적인 질서를 되찾기 위한 해방적 놀이로 기능한다.

90년대에 들어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가부장적 남성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근중심주의에 대한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여성시의 성적 표현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금에 절었고 간장에 절었다  
 솟타임 오천원,  
 오늘밤에도 가랑이를 열댓번 벌렸다  
 입에 발란 ××, ×××  
 죽어 널브러진 영자년 푸르딩딩한 옆구리에도 발길질이다  
 그렇다, 구제 불능이다  
 죽어도 목숨값 없는 화냥년이다  
 멀쩡 몸뚱아리로 뭐 할 게 없어서  
 그것이나고?  
 어이쿠, 이 아저씨 정말 죽여주시네

— 이연주, 「매음녀 3」 전문

이 시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왜곡된 존재 방식이다. 시적 화자가

20) 마르쿠제, 『에로스와의 문명』, p. 246

남성의 목소리를 빌려 “뭐 할 게 없어서 / 그것이나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 희생된 여성의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을 이 시는 말하고 있다. 너무 남성 중심으로 욕망이 재편된 현실에서 여성은 상품적 가치로 전락하고 정상적인 삶의 보장은 끝없이 지연된 채 “죽여도 목숨값 없는 화냥년”으로 다만 살아갈 뿐이다. 때문에 이 시는 그러한 왜곡된 욕망의 관리체계를 바로 그 욕망의 실체인 성으로 뒤집어 보여준다. 남성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관심과 동정이 실은 얼마나 허구이며 조직적인 폭력인가를 “어이쿠, 이 아저씨 정말 죽여주시네”라는 말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이연주의 시 속에서 성적 표현이 여성의 존재를 남성의 욕망이나 달성하는 도구로 몰아가는 남근 중심주의에 대해 여성 존재의 의미를 확보하고자 하는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생산적인 문학담론으로서 성적 표현

마르쿠제는 진정한 예술의 기능을 해방을 위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즉 “한 개의 예술작품이 혁명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만일 미학적 변용을 통해 이러한 예술작품이 본보기적인 개인의 운명 속에서 일반화된 부자유와 억압적인 힘들을 드러내고 게다가 신비화된(교착화된) 사회 현실을 획기적으로 뚫고나가 변화(해방)의 지평선을 열 수 있을 때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진정한 예술작품은 혁명적일 수 있으니, 즉 지각과 이해의 파괴자요, 기존 현실에 대한 고발이며 해방에 관한 이미지의 표현인 것이다.”<sup>21)</sup> 필자가 보기에 예술은 해방에의 약속이다. 그럴 때 성적 표현이 보여준 정신과 기법은 바로 이러한 해방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성적 표현이 비록 저속하고 파괴적으로 치달아 문학의 타락을 불러올 지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성적 표현이 갖는 의미가 예술을 우리의 현실적 삶의 장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굳어진 인식, 즉 우상의 파괴를 통한 평등적 사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생산적인 문학 양식이라 봐야

21) 마르쿠제, 『미학의 차원』(문학과 사회연구소, 청하, 1983), p. 11

한다.

그런 점에서 성적 표현은 열린 문학을 지향한다. 굳어진 관념 체계를 깨뜨리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현실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한다. 그리하여 현실 속에서 자칫 상실하기 쉬운 주체의 회복과 그로 인한 자유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 열린 사고를 가능케 하는 생산적인 담론이라 하겠다.